

변호사 2만명 시대... '앞아서 수입' 옛말

로스쿨 출신·개업변호사들 발로 뛰며 명함 돌리기 마케팅 광주 347명...無辨辨·혁신도시 등서 의뢰인 모시기 분주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법원장·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까지 개업을 준비하면서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서는데 골몰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가 2만 명이 넘으면서 변호사(Lawyer) 대신, 마케팅까지 나서야 한다는 '로케터(Lawketer)'라는 단어가 거론될 정도로 '변호사 박쟁' 시대다.

◇변호사 없는 곳 찾아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소병선(31)·박인동(32)씨는 지난해 11월 화순에 법률사무소를 냈다. 화순은 광주와 가까운 탓에 지금껏 변호사 사무소가 없었다. 소 변호사 등은 의뢰인이 가깝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화순에 터를 잡고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틈날 때마다 찾아 명함을 돌리고 있다. 마을 변호사 활동에 사무장 대신, 변호사들

이 먼저 상담하고 사건 현장까지 찾아가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화순 농공단지 입주 기업 150곳을 일일이 방문하는 계획도 세웠다. 박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자격을 활용,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법률 대금 추심, 특허 신청 등 법률 자문을 하는 '상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소씨는 "수입은 고용변호사의 절반 수준이지만 '내 의뢰인'과 '내 사건'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홍현수(41) 변호사는 '나주혁신도시 1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다. 나주에 냈던 사무실을 지난해 1월부터 혁신도시로 옮겼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분양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게 홍 변호사 구상. 법조계도 당장, 2~3년 안에 혁신도시 일대 상가 임대차 관련, 변호사들

이 처리할 업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함평에 동지를 둔 전세정(45)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변호사다보니 "명의만 빌려준 사무소 아니냐"와 "정치하러 고향에 내려왔냐"는 의혹도 받기 일쑤다.

하지만 그는 2년 6개월 전, 함평군 통합평산단 조성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올리는 등 차별화된 변호활동을 선보였다. 전씨의 사례는 나주미래산단, 목포대양산단, 김제지평선산단 조성에 대한 감사의 끈을 조이는 촉매제가 됐다.

◇전문 분야 찾고 소액 사건 등에도 눈 돌려=전문 분야를 선점하려는 변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1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변호사들 17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를 등록하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이 얽어지고 있는데 주목,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

사들이 4명이나 되고 부동산(3명)이나 손해배상(2명), 의료(2명) 등 특화 부문을 내세우려는가 하면, 건설·금융 등을 전문으로 내세운 변호사들도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최근 2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인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을 맡게 되는 변호사 뿐 아니라, 나홀로 소송을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수입할 수 있어 충분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회 판단이다.

이외 중소기업 전문변호사제도도 의뢰인들 기업과 변호사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사 1전문 변호사 제도' 정착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변호사들은 347명으로, 2012년(253명), 2013년(276명), 2014년(305명) 등 꾸준한 증가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목포해경 123정장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구조 담당 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적용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뒤 소극적 대응으로 공분을 샀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구조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부실 구조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11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구조 작업을 펼친 김경일(57·해임)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것도, 혐의를 인정할 사례도 처음인 것으로 법조계는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구조 활동에 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 "123정 승조원들에게 방승장비로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실시할 것과 갑판에서의 퇴선 유도조치 할 것을

지휘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정장이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44분께 퇴선 명령과 퇴선유도조치를 지휘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선내 전체에 전파될 수 있었고 4층 선미쪽 선실에 있던 승객들은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의 과실로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망, 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됐고 국민은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차적 구조책임자에도 승객들을 유기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은 임직원들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았던 유가족들은 "차라리 내보내라", "304명이 죽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체육관 공사장 천장 붕괴 2명 매몰...구조 작업

11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천장 슬라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위에 있던 작업자 일부가 떨어지고 그 아래 있던 작업자 일부가 잔해에 깔렸다.

이로 인해 작업자 중 2명이 완전 매몰되고 7명이 일부 매몰됐다가 오후 6시28분 현재 모두 구조돼 중앙대병원, 강남성심병원, 동작경희병원, 보라매병원 등으로 나눠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중이다.

구조된 사람 중 일부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는 "갑자기 천둥소리처럼 '팡'하는 소리가 나더니 천장 일부가 떨어져 사람이 깔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관 98명, 경찰 192명, 구청직원 20명 등 파견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으로 황급히 향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3년 6월 착공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천102㎡ 규모에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올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11일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12~14 km 지점에서 버스, 승용차 등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들이 엉켜 있다. /연합뉴스

105중 추돌 사고 인천 영종대교 안개 탓...2명 사망·63명 부상

인천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속에서 10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45분께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부터 서울방향 3.8km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5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51)씨 등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

는 10명이고 이 중 2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7명 등 18명의 외국인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105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 엉키면서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전정터 같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60)씨가 상부도로 1차로에서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고, 이어 2차로를 달리던 최모(여·58)씨의 공항리무진버스가 한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씨는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명절 선물' 노회용 동구구청장 징역 2년 선고

노회용(53) 광주 동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6000만원을, 이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신 해준 업자 이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57)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1인당 많

게는 230여만원에 이르고 현직 구청장으로 기부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걸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평판을 위해 선물을 돌린 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에게 대선 선물을 주도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내용과 관련, 증거 부족 등을 들어 일부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기부행위 액수 등이 줄어들었다.

한편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의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환각 증세 60대, 흡친 화물차 몰고 경찰서 돌진

○환각증세를 보이던 60대 남성이 "쫓기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흡친 화물차를 몰고 경찰서에 돌진했다가 경찰서행.

○11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최모(63)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에 장흥읍 부산면 한모(60)씨의 주택 마당에 주차한 한씨의 11화물차를 흡친 뒤, 차를 몰고 장흥경찰

서로 돌진해 입구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 ○"이날 차를 흡친기 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의 담을 넘어 들어가 다 경비업체의 제지를 받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던 최씨는 경찰에서 "두건을 쓴 남자가 낚시줄을 들고 나를 쫓아와 파출소로 도망쳤는데, 경찰이 나를 다시 집에 데려다 놔다"며 횡설수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3천1백20만원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가능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급매 - 1억 5500만원

빌라 "급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오상근외과 신우APT 제5동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 매매 - 5천1백만원

근린상가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했습니다.

문의. 010-3605-5000